

美國의 石油禁輸 해제와 전망

최근 美國정부가 알래스카產 원유의 금수정책을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최근 「존 헤링턴」 에너지장관이 알래스카產 원유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관계법 개정을 시사했다. 이와같이 美國이 알래스카 원유수출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국제원유가격 폭락으로 앞으로 알래스카의 원유생산이 줄어들고 이에따라 석유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. 알래스카 原油수출이 열리면 美國의 엄청난 무역적자 해소에도 보탬이 되고, 주요 수입국이 될 아시아 우방국들의 中東석유 의존도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지난 13년간 금지해운 알래스카 노드슬로프(ANS) 原油수출의 해제 여부는 앞으로 美國 및 세계 여러 소비국들의 OPEC 석유 의존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, 현재와 같이 국제원유가격이 폭락된 상태에서 수출금지가 계속될 경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原油생산량은 오는 1990년에 가면 약 100만 B/D 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.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重質원유 생산의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어지고 알래스카 유전에 대한 투자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.

최근 원유가격이 폭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서 조업하는 생산업자와 州정부들은 저유가와 수출 금지조치로부터 유발되는 높은 수송비를 기꺼이 부담해 왔다. 금년에도 이와같은 금수정책이 계속될 경우 여러가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은 틀

림없다. 석유 금수조치가 해제될 경우, 금세기 말에 가면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102억달러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, 생산업자도 97억달러라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美연방정부의 수출금지 때문에 美國의 총원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 생산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原油가격을 대폭할인하여 공급과잉상태인 서부해안시장에 팔고, 나머지는 고운임의 미국적 유조선에 싣고 멀리 멕시코만과 동부해안까지 수송판매 해야만 했다.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가격이 배럴당 10~15달러 수준이면 캘리포니아 重質油는 12달러로 떨어지고, 알래스카 노드슬로프 원유의 油井가격은 현 스파트 가격으로 미루어 보아 12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.

가격할인과 수송비용을 없앤다면 노드슬로프원유의 油井가격은 배럴당 최대 5달러까지 높일 수 있으므로 日本·韓國·기타 極東지역으로의 수출에 대한 타당성이 부여될 것이다. 따라서 알래스카 유전의 지속적인 개발을 유지, 1980년 후반에 있을 프루도灣 유전의 생산량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. 알래스카의 최대 석유생산회사인 BP's Standard Oil社에 따르면, 노드슬로프의 3개 주요 프로젝트(Endicott 근해유전개발, Lisburne 유전개발, Prudhoe 유전의 2차 회수사업)가 진행되고 있는데, 노드슬로프 유전에 대한 현재의 경제성으로 보아 이 프로젝트들은 처음부터 착수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한다.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유망한 근해 여러유전 개발사업과 육상성숙유전의 값싼 3차 회수사업등으로써 기대하는 1990년의 50만B/D중산은 전망이 불투명하다.

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原油의 할인판매가 철폐되면 거대한 美國시장이 개방되어 인도네시아 및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원유수입이 가능해지고, 캐나다도 美國 북서부에 대한 원유 수출물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. 급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통한 原油 및 석유제품거래는 北美的 무역상황이 바뀔에 따라 자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美國의 석유생산량이 위축될 위협에 처하게 되자 美의회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수조치 해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. 여기에다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과 저유가 현상이 겹쳐 당초 공급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취한 수출금지정책의 해제는 불가피할

것으로 전망된다. 그러나 장래에 에너지의 안정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또다시 동 금수조치는 내려질 것이다.

금수조치로 가장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회에 강력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상선단 업자이다. 금년초 美행정부는 알래스카 남부 Cook Inlet 油田으로부터 소량 원유의 명목수출을 허용한 바 있다. 여기에서 명목수출이란 장차 본격적으로 수출할 뜻을 내포한 소액의 수출을 의미한다. 현재 北美的 석유생산자들은 유가폭락으로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. 그중에서도 美國 원유 생산의 거의 20%를 차지하고 있는 노드슬로프 원유 생산자들이 특히 더 그렇다. 왜냐하면 막대한 수송비 부담으로 油井판매가격을 최하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.

현재 노드슬로프의 멕시코만 및 동부해안지역에서의 스파트 가격은 생산자들의 조세부담도 보전해 주기 어려운 수준에 있다. 노드슬로프 유전에서 생산되는 60만B/D의 原油는 대개 美國 동부시장으로 수송되는데, 이종의 절반가량이 스파트 시장으로 들어간다. 美國에서의 평균 석유 생산비는 배럴당 5달러 선이다. 그러나 유가가 10달러 수준이면 美國은 12개월내에 노후 유정의 40%, 즉 18만 5천 개소의 유정이 폐쇄되어 64만B/D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. □(PIW)

노드슬로프 원유와 他 원유의 性狀비교

	이라니안라이트	이라니안 헤비	노드슬로프	
比重(15/4℃)	0.856	0.870	0.894	
API*	33.7	31.1	26.8	
동점도(50℃, cst)	4.6	6.8	37.8℃, 16.5	
유동점(℃)	-27.5	-35	-20	
납 분(wt%)	3.5	3.7	-	
유황분(wt%)	1.5	1.7	1.04	
철소분(wt) %	0.15	0.2	-	
收	휘발유 유분 (Vol%)	IBP-180 24.5	IBP-178 20.2	IBP-150 12.8
	灯油 유분 (Vol%)	180-250 13.0	178-251 12.5	159-250 13.9
率	經油 유분 (Vol%)	250-320 15.5	251-334 13.8	250-343 17.2
	殘油 유분 (Vol%)	47.0	51.9	54.3